

조세프 피시킨(유강은 역), 《병목사회》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권기마 연구원

제3부 기회 다원주의

1장 단일한 기회구조와 다원주의적 기회구조

기회다원주의의 핵심은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1) 사회에는 가치와 목표의 다원성이 있어야 한다.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2) 최대한 많이 높이 평가되는 재화가 비지위재(또는 지위와 관련성이 약한 재화)여야 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높이 평가되는 역할이 비경쟁적 역할이어야 한다.

(3) 높이 평가되는 재화와 역할로 이어지는 경로의 다원성이 가능한 한 존재해야 하며, 병목현상 때문에 이런 경로를 추구할 사람들의 능력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병목현상 방지 원리)

(4) 다른 원리들에서 설명한 요소들과 관련된 권위의 원천이 다양해야 한다. 소수 문지기 그룹의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결정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 원리들은 한편으로 조건들이기도 하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정도만큼, 이것들은 내가 말하는 이른바 다원주의 모델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를 나타낸다.(247)

인간생활에서 높이 평가되는 어떤 재화나 역할, 지위 등이 희소한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한다. 경쟁과 경쟁의 판돈 두 측면 모두 이 부의 주제인 기회구조의 다양한 측면에 좌우된다. 현실사회에서는 전사사회에서와 달리 많은 일자리와 직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일자리와 직업을 위계적으로 배열하는데 동의하고, 일자리와 직업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된다면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실적인 기회구조 모델이라면, 우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추구하기를 바라는지에 관해 우리가 갖는 선호의 내생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회구조 자체가 우리의 선호를 모양 짓는다.(250)

우리가 오직 타인들이 제시하는 ‘정형’을 참조함으로써만 우리 삶을 구성하고 가치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처사인 것 같다.

따라서 기회 다원주의의 첫 번째 구성요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다

<조건1> 가치와 목표의 다원성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구체적 가치와 역할을 추구하고자 하는지에 관해 다양한 관념을 갖고 있고, 이런 불일치(차이)를 드러낸다.(253)

사람들이 관련된 재화(돈)를 지위재 -즉 그것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의 수 그리고/또는 그들이 소유한 양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재화-로서 소중히 여기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과 목표달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쉽게 과밀해질 수 있는 재화 같은 일부 재화는 본래 지위재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재화는 지위재로든 비(非)지위재로든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258)

가치 다원주의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면에서 어떤 재화를 높이 평가하고, 지위적인 면에서 어떤 재화를 높이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불일치(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어떤 재화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그들의 사고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각기 다른 역할들 중에서 일부는 경쟁적이고 일부는 경쟁적이지 않다.(259)

<조건1>의 가치와 목표의 다원성이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다양한 재화와 역할을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조건2> 비경쟁성 그리고 가치와 목표의 분리

높이 평가되는 재화와 역할 중 최대한 많은 것이 비지위재와 비경쟁적 역할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재화와 역할이 한데 결합되기보다는 분리되어야 한다.

<조건2>가 충족되는 정도만큼 이 조건은 1부에서 다룬 업적, 가족, 출발점 등의 상호 관련된 문제들의 판돈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 물론 부모는 언제나 자기 자녀에게 발달 기회를 비롯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기회 불균등을 조성한다.

높이 평가되는 재화와 역할이 비지위적이거나 비경쟁적일 때, 부모의 유리한 조건의 효과는 사라진다. <조건2>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지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263) 시장경쟁을 필요로 하는 어떤 역할이나 경력이든 완전히 비경쟁적일 수는 없다. 또한 현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재화와 역할 중 일부는 매우 경쟁적 그리고/또는 지위적일 것이다.(264)

병목현상 방지 원리

<조건1>과 <조건2>가 충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중요한 경쟁 시험은 병목으로 작용한다.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좁은 장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구조가 이렇게 모양 지어진 사회에서는 가족문제, 업적문제, 출발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비지위적·비경쟁적 목표를 경쟁적·지위적 목표로 뒤바꾼다. 다시 말해, 충분히 강력한 병목은 그 자체로 기회구조에 속한 많은 참여자들의 유인과 동기를 다

시 배열하기에 충분하다.(270)

다원주의 모델은 각기 다른 유인을 만들어내고 상이한 동기를 생기게 한다. <조건 3>이 충족되는 정도만큼, 애초에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는데만 집중하는 부모조차 보편적으로 동의된 지침을 훨씬 덜 갖게 될 것이다.

<조건3> 병목현상 방지 원리

높이 평가되는 역할과 재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능한 한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며, 그런 경로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병목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의 경로는 준비기관과 자격, 훈련기회와 경험, 그밖에 높이 평가되는 역할이나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발전시키거나 성적증명서를 확보하게 해주는 중간 단계의 연속이다.

4년제 대학 학위는 미국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병목이다. 기회구조 전체에서 높이 평가되는 많은 역할을 추구하려면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 이런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의 비중을 줄이면 병목현상 방지 원리가 증진될 것이다.(275)

그러나 병목현상 방지 원리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 거의 어떤 체계에서는 입학시험이나 다른 입학 기준이 일부분이 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요건들이 지나치게 엄격한 병목이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병목현상 방지 구상은 우리가 보통 기회균등에 관해 갖는 대부분의 사고방식과 충돌한다. 기회균등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기회를 갖는 보편적 시험 체계는 일정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험 체제는 언제나 어느 정도 과거 발달 기회의 결과물인 능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에 따라 시험 체제는 시험의 형상대로 발달 기회를 개조하려는 유인을 만들어낸다.(278)

누가 기회구조를 통제하는가?

일부 사회에서 국가나 다른 어떤 중앙집권적인 권위가 주요한 교육 경로와 이 경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험과 자격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확실성을 목표로 삼을 때, 이 통제 역시 병목현상을 야기한다. 성적증명서와 교육단계로 이루어진 특정한 연속과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면 똑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81)

<조건4> 권위 원천의 다양성

앞의 세 조건에서 설명한 재화, 역할, 경로, 자격 등과 관련하여 -모두 일치하지 않는-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권위의 원천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들 스스로 삶에서 실험을 하면서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화, 역할, 경로, 자격 등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282)

중심적인 단일한 의사 결정자가 아니라 다양한 결정자가 있으면, 상이한 업적 개념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물론 의사결정자가 다수이더라도 똑같은 비좁은 통로로 모여들 것을 요구하는 공통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가령 각국 정부는 표준화를 피하고, 상이하고 상충하는 업적 개념을 실험하는 기관들에 보상을 주는 지원금 조성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다.

기회구조에 대한 통제를 탈집중화하는 가장 급진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그 통제권 일부를 당국과 제도의 문지기들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개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조건4>의 마지막 조항에 담긴 사고이다.

개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전의 목표나 역할, 경로와 관련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의 실험은 적어도 기존의 사회적 형태들을 수정할 수 있다.

2장 병목현상의 동학(The Dynamics of Bottlenecks)

기회구조에서 모든 병목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원주의 모델은 완전히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닌 노력의 방향을 나타낸다. 우선 사회가 어떤 병목을 개선하거나 제거해야 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에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병목을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병목의 유형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병목의 대부분은 **자격 병목**이다. 전사사회의 전사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 사회의 중요한 시험은 전형적인 자격 병목이다. 자격 병목은 그렇게 공공연한 것일 필요가 없다. 문제는 어떤 경로를 추구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병목은 절대적인 차단 장치일 필요가 없다. 강한 선호 역시 덜 심각하지만 병목을 형성한다. 가령 고용주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 지원자를 강하게 선호하는 경우 졸업장은 심각한 자격병목이 된다.

다음으로는 **발달 병목**이다. 이 병목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상이한 경로를 추구할 자격을 얻게 되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289) 이런 발달 기회가 희소한 정도만큼, 이 기회(가령 명성있는 각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발달 기회)는 병목을 형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교육기관은 발달 기회와 졸업장이라는 형태의 자격증 둘 다를 제공하는데, 이것들은 각각 따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이중 효과는 다원주의적 성격이 약한 기회구조에서 선발제 학교 입학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주요한 기회 불균등은 대부분 발달 병목이라는 측면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언어습득, 가난하지 않은 성장 등).

마지막으로 도구재 병목은 <조건1>과 <조건3>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도구재 병목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많은 소중한 재화를 ‘사거나’ 얻기 위해, 또는 여러 형태의

인간 행복으로 이어지는 많은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 어떤 특정한 재화가 필요할 때 이다(대표적으로는 돈).

이 세 종류의 병목 전부를 동일한 일반적 현상의 하위 유형으로 특징짓는 것이 유용하다. 현실세계의 기회구조가 종종 이 세 종류의 다양한 조합을 필요로 하며, 이 셋은 흔히 상호 강화하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은 자격(졸업장, 시험성적), 발달된 기능(고등학교 상급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등), 일정한 도구재(대학 등록금)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은 병목이며, 중요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292)

기회다원주의는 돈의 힘이 갖는 이득과 비용에 관해 좀 더 종합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의 힘은 기회구조를 유용한 방식으로 평평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로를 추구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면, 돈은 유력한 도구재 병목이 된다.

정당한 병목 대 임의적(*자의적) 병목

우리는 기회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어떤 병목이 다른 병목보다 더 문제가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풀려면, 기회구조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병목이 사람들이 소중한 형태의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295)

이보다 더 단순한 질문은 이 병목은 임의적인 것과 반대의 의미로서 어느 정도 정당한가, 즉 이 병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얼마나 확고한가라는 질문이다. 정당성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성이나 임의성이나'라는 스펙트럼은 자격 병목에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어떤 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거나 임의적인지의 질문은 법률과 정책의 많은 분야에서 익숙한 질문이다. 하지만 병목현상 방지 원리가 단순히 임의적인 병목을 제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어떤 병목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기회 다원주의 관점에서보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299)

병목의 심각성

어떤 병목이 기회 다원주의를 제약해서 기회구조를 단일한 방향으로 압박하는 정도만큼, 그 병목이 심각하다고 부르기로 한다. 어떤 병목이 더 심각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다. 첫째, 그 병목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와 둘째, 그 병목이 얼마나 엄격한가이다. 만연성과 엄격성은 정도의 문제이다. 현대 세계에서 차별은 종종 굉장히 엄격하지는 않지만 매우 만연한 병목의 형태를 띤다. 아주 만연한 병목을 이루지만, 특별히 엄격한 병목은 아니다. 이 두 요인의 결과물은 심각성이다. 여기서 심각성이란 병목이 가능한 경로들의 스펙트럼에서 많은 부분을 방해하는 정도이다.(302)

자기에게 열려 있는 고용 기회의 스펙트럼을 살피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관점

에서 볼 때, 어떤 주어진 병목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가-얼마나 만연해있고, 얼마나 엄격한가-하는 점이다.(305)

병목의 심각성을 줄이려는 다른 시도는 엄격성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범죄전과가 있는 사람의 채용을 고려하는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병목을 만들어낸다.(306) 심각성은 어떤 주어진 병목이 기회구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다원주의와 다른 가치들(가령 경제적 비용 및 비경제적 비용 등)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임의성과 정당성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307)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병목에 영향을 받는가

병목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한 질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311)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어진 병목에 영향을 받는가-그리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는가이다. 어떤 병목은 심각하면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꾸로 일부 병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특별히 심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어떤 병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는 그 병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와 같지 않다. 중요한 시험 사회에서는 병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다.(312) 그러나 시험이 존재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이 중요한 시험에 의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회구조를 상당히 다원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단순히 통과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시험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도록 기회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다.(313)

분명 통과하는 점수를 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회구조의 다원적 성격을 강화하려면 병목의 심각성을 줄여야 한다. 즉 병목이 기회구조를 차단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회구조를 개조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통과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314)

병목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회 다원주의는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거나, 없애서는 안 되는 병목을 완화하기 위한 두 갈래 접근법을 권한다.

- (1) 개인들이 그 병목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개선하라(기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접근성을 더 넓혀라)
- (2) 병목 주변에 다른 경로를 만들어서 개인들이 병목을 통과하지 않고도 높이 평가되는 재화와 역할에 도달하게 하라

가령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영어를 배울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은 (1)에 기여하는 것이고, 실제 필요로 하지 않은 요건을(가령 영어구사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2)에 기여한다(315).

병목현상과 직무 내용

병목의 분석이 항상 법적으로 보호받는 집단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 125파운드 (약 56kg)를 들어올리는 직무는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그 자체로 하나의 병목이 된다.(321) 그러나 이 병목은 어쨌든 여성들을 배제하거나 남성을 선호하는 더 큰 구조를 강화한다. 따라서 이 병목이 기회구조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는 성별 병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전체적으로 좌우된다.

또한 가령 비행기 조종석이 특정한 치수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대부분의 여성과 일부 남성은 조종사가 될 수 없는 경우, 이런 병목에는 물리적 요건이 포함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적어도 어떤 병목이 기회구조 전반에서 어디에 들어맞는지에 관한 일정한 정보 없이는, 한 병목의 개선이 갖는 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평가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323)

병목현상을 기회구조 전체 안에 자리매김하기

리처드 포스너는 한국계 소유 소규모 청소회사가 청탁채용에 의존해서 채용했다고 해서 차별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위 경우 한국계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의 고용기회에서 완전히 배척될 수 있다.(324) 그러나 포스너는 이러한 채용으로 한국계 아닌 다른 사람들은 거의 통과할 수 없는 병목이 생긴다고 해도 더 큰 기회구조는 정확히 반대 종류의 병목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한다. 특정 도시 지역 출신만을 선발하는 지역적 병목도 최종적으로는 전반적인 기회구조를 더욱 다원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는 병목 주변에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326)

병목현상, 효율성, 인간자본

병목을 개선하는 데는 때로 효율비용이 든다. 이런 비용은 기회 다원주의 증진의 가치와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공식 같은 것은 없다.

효율비용과 관련하여, 가령 단순히 기업들에게 채용요건을 변경하게 하거나 내적 직무구조를 개조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며,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에 착수하도록 강제한다. 병목을 개선하는 작업은 이처럼 종종 효율비용을 발생시킨다.

한편 일부 병목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임의적이다. 가령 자격 병목을 만들어내는 시험과 기준을 채택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저렴한 시험은 설령 무척 부정확하다 할지라도 때로 거시경제적인 의미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331)

병목의 잠재적 이익

어떤 병목들은 그대로 놔둠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개선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 경쟁은 고된 노력을 유도할 수 있고, 실제로 종종 그런 작용을 한다. 때로는 그런 노력이 또한 사회적으로 유용하거나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이 주장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밀어붙여 보면 <조건2>를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기회의 피라미드에서 더 높고 좁은 계단을 오르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초경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존 샐가 암시적으로 말한 기회균등의 디스토피아를 덜 향락적이고 더 일 중독적으로 바꾼 형태일 뿐이다.

3장 행복, 완전주의, 우선권

우리에게 우선순위 매기기라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어떤 병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희소한 자원을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병목을 완화할지는 어떤 병목이 심각한지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어떤 병목이 만연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경로들의 수와 관련된 게 아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병목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병목이다. 여기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 행복한 삶으로 간주되는지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를이다. 행복개념을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진 선호의 충족에 국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복에 대한 희미한 최소한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모두 기회 다원주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뒤엎힌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어떤 병목을 개선하는 게 다른 병목보다 더 중요한가. 2. 누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제약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경로를 열어주는 것에 특별히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는가(343)

공통 척도가 없는 기회균등

때로는 한 병목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결정하는 일이 간단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어떤 기회가 단일한 성과 척도에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정하는 것이라면, 스펙트럼 왜곡¹⁾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범위의 기회들의 폭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가령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가능한 기회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공통 척도 접근법은 기회 다원주의의 핵심에 있는 가치 다원주의와 상반된다. 기회 다원주의의 요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단일한 척도에서 상위의 결과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1) 가령 유년기에 자녀의 소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개입하여 좁은 범위의 기회를 넓다고 보거나, 넓은 범위의 기회를 좁다고 보는 것

한다는 것이다.(346) 나는 인간 행복의 상이한 차원들을 포함하는 각기 다른 삶을 항상 객관적이거나 몰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치의 단일한 위계질서에 따라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균등화할 방도가 없다.(347)

그렇다면 기회균등에는 무엇이 남을까? 기회의 묶음들에 대해 완벽한 나열적 또는 서열적 순위를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 기회 묶음의 폭에 관해 일정하게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은 이 기회 묶음이 열어주는 소중한 형태의 인간행복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회묶음은 대략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좁거나 넓다고 비교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서열적 순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대략적 판단이 생기면, 기회범위와 관련하여 대략적 형태의 약자우선주의를 실행할 수 있다. 분배정의에 관한 약자우선주의 견해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그들의 형편이 나쁠수록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평등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주된 직관을 포착한다.(348)

기회의 우선권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회와 기회의 묶음이 부분적으로라도 통약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단순한 방식으로 개인의 선호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의 소망과 목표는 우리의 역량이나 기능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회가 낳은 소산이다.

병목과 기회의 집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부분적 통약 가능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일정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런 행복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집계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하나의 심각한 병목이 소수의 기회를 제약하는 한편, 다른 하나의 덜 심각한 병목이 다수의 기회를 제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약자 우선주의의 중대한 단점 하나는 이런 식의 질문에 답할 공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자우선주의는 설령 단 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심각한 병목을 개선하는 데 많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효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인생 경로의 범위를 가장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약들을 확인하는 것이다.(351)

희미한 완전주의와 자율성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펴는 견해는 희미한 형태의 완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완전주의는 행복을 실현하는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필수적이고 무엇이 그런 삶의 독특한 특징인지에 관한 것이다. 밀은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관해서는 두툼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원적이고 답이 열려 있는 완전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353)

이렇게 희미한 밀의 특성과 유사한 인간 행복에 대한 현대의 가장 정교한 설명은

아마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이 정식화한 역량 접근법이다. 센은 상이한 기능을 획득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 무엇이 삶을 순수롭게 만드는지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어떤 단일한 가치척도로 환원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우리는 개인들이 행복한 삶의 어떤 측면들이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355)

기회구조를 좀 더 다원적인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행복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단일한 모델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이 배제되거나 방해받는다. 기회구조가 다원적이면 다른 지반 위에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린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율성에 관한 이야기이다.(357) 기회다원주의는 사람들이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제4부 응용(*적용)

기회다원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응용은 대부분 자격 병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더 다원적인 기회구조를 건설하는 데 조력하고자 하는 고용주, 학교, 기타 문지기들은 입학, 채용, 승진 등등에 관한 결정을 위해 활용하는 기준에서 유래하는 자격 병목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

1장 병목으로서의 계급

소득 불평등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연관관계 역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교육 또한 계급적 배경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를 보면 계급적 배경이 중요한 병목임이 드러난다.(366)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인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교육과 지불능력에 관한 것이다. 셋째는 계급에 따른 주거와 학교 분리에 관한 것이다.

하향 이동에 대한 두려움 : 불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우화

어느 정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없으면 인간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을 대부분 달성하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회(가상의 '미국')에 산다고 상상해보자. 또 이와 대조적으로 가상의 '덴마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사회 중 한쪽에서 당신이 추구하기로 택하는 다양한 인생 계획 가운데 어떤 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 소득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둘 것이다. 만약 가상의 '덴마크'에 산다면,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관한 나름의 견해에 입각해 더 많은 소득을 제공하는 경로나, 여러 가능한 이유로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로를 추구하기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상의 '미국'에서는 대체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버는 것을 포함하는 경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거의 확실히 실수를 저지르는 셈일 것이다.(369)

돈은 너무나 유력한 도구재 병목이다. '미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조건1>과 <조건2>를 달성하는 게 어려워진다. 도구재 병목은 개인들에게 열려 있는 합리적인 일군의 선택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는 다양한 비금전적, 비거래적 기본재산을 제공함으로써 도구재 병목을 완화할 수 있다. 덴마크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보육 등의 기본재산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사회복지국가가 제공하는 필수품을 얻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돈을 벌 필요가 없고, 다양한 인생 계획-<조건1>-이 가능해진다.(371)

이러한 접근법은 낮은 소득에 수반되는 위험을 어느 정도 줄여준다. 이는 가난의 고통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 때문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정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372)

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재산으로 기회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조치들은 그 정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여전히 매우 불평등하다면 어린이들이 누리는 기회 역시 매우 불균등할 게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제한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가장 분명한 전략은 조세 정책이다. 누진율이 높은 소득세는 이런 식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지난 30~40년 동안 현실의 미국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높아졌다. 사회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불평등이 증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총 지출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음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인지 발달에 대한 부모의 투자가 늘어났다. 또한 고소득층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375)

병목으로서의 대학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학위를 보유한 성인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다.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의 커다란 격차는 상이한 가족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린 경력 경로에 극명한 영향을 미친다.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 비율은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대학 학위가 없다는 것은 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병목이 된다.

고소득층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무사히 학위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377)

병목현상 방지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대학 학위 병목을 통과하고 우회하는 과정 둘 다를 도울 필요가 있다. 먼저 업적 기준 지원을 필요 기준 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부활시켜 등록금 상승을 막고 펠 장학금²⁾ 같은 필요 기준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381)

정부가 등록금 자체를 재구조화하도록 돕는 것도 있다. 대출·상환 체계에서 소득 조

2) 연방 정부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최소 수준의 학점 이상이면 1년에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건부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대학 준비를 향상시킨다는 더 어려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선발제 대학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 그런 지식을 접하게 돕는 한편, 이 경로를 실제로 추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멘토와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각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대학 학위 병목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382)

동시에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대학 학위 병목을 우회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로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영역과 비고용영역 모두에서 4년제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수습제도, 훈련프로그램, 유급평가기간 고용 등). 독일은 잘 발달된 수습 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대학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중급·고급 전문기술 관련 직업을 준비시킨다. 물론 독일에서 김나지움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여지는 거의 없지만, 수습제도는 젊은이들이 기술직 경력을 지닌 성인들에게 배울 기회를 상당히 폭넓게 제공한다.

4년제 대학 학위 병목을 우회하는 경로를 열기 위한 퍼즐의 중요한 조각 하나는 문화적인 것이다. 4년제 학위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경로이고 다른 어떤 경로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실패한다는 가정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하나의 출발점은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경로를 열고, 또한 현재 불필요하게 학위 요건을 부과하는 일부 직무에서 이 요건을 제거하는 식으로 이 요건을 우회하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장 요건은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병목이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4년제 대학 학위는 분명 새로운 고등학교 졸업장이다. 대학 학위 병목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깊고 만연한 병목을 훨씬 더 강하게 강화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385)

병목 현상 방지 원리는 빈곤층 같은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특정한 경력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이 있는데 “임의적이고 불필요한 장벽”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386)

이러한 병목 개선은 개인적인 출생환경의 효과(부모의 투자, 출생시부터의 격차)를 강화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387)

분리와 통합 : 네트워크와 규범에 관한 이야기

대체로 학교와 지리적 위치는 유력한 병목 관계에 있다. 기회의 지리학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자원을 가진 이들이 그 자원을 활용해 주거 위치를 통해 자녀의 기회를 향상시키기로 한 개인의 결정과 공공정책의 선택 둘 다의 소산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른 학생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 같은 인구학적 변수가 주택 가치에 더 큰 진폭을 야기하며 거주 지역에 관한 부모들의 선택에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동네에 사는 다른 가족들의 교육, 소득, 인종 등에 관해 파악된 내용이다. 이런 선호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급에 따른 분리가 증가되는 관찰된 추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390)

부모들은 자녀의 또래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선택이 가지는 외부효과는 기회의 지리학을 ‘기회의 땅/가난의 땅’ 시나리오 쪽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또래 효과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동네가 발휘하는 유일한 효과가 아니다. 사회학자들은 동네에 사는 성인들 또한 사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고립, 범죄, 폭력, 서비스 접근성 같은 동네 변수들도 중요하다.(392)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병목이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그 병목을 통과하도록 돕는 방법이 통합이다. 공공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계급과 인종에 의해 분리되는 정도를 줄이는 것이다. 통합개념을 주거통합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학교와 주거 둘 다 네트워크를 모양 짓기 때문에, 이 둘의 연계를 끊는 문제에 관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395)

네트워크 접근성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 중 하나는 제도 설계 선택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네트워크 접근성을 높이기만 해도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일정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해법의 한 부분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접근성이라는 병목을 우회하는 길을 찾게 도와주는 것이다.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지식, 경험, 연계 등에 대한 접근성을 얻을 수 있는 공식적 과정이 존재하면, 이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줄어든다.(396)

통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히 병목을 우회하게 해주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농촌 청소년들의 세계는 더 광범위한 인생 경로를 접하면서 자라는 이들과 비교해서 그 지평과 열망이 제한되기 쉽다(397)

물질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계급을 병목으로 만드는 모든 방식이 강화된다. 물질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한 사람이 기회구조에서 결국 갖게 될 자리의 판돈이 커지며, 이 구조의 중요한 부분들이 더 단일해지고 하향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계급적 지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더 많은 부를 가진 가족이 계급에 의해 스스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분리하려는 동기가 커진다. 따라서 기회 불균등의 해법의 중요한 한 부분은 누진과세나 사회보험, 비금전적 기본재산 제공 같은 공공정책 선택에 있을 것이다. 이런 선택은 물질적 불평등을 줄이거나 이런 불평등의 현실적 중요성을 완화함으로써 자신이 만들어내는 병목의 심각성을 완화한다.

이런 구상들을 어디까지 추구해야 하는지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어떤 지점에 이르면, 징벌적인 과세로 인한 완벽한 물질적 평등은 다른 방향에서 다원주의에 위

배된다.(399)

2장 노동 세계의 자유와 유연성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각기 다른 형태의 행복의 조합을 추구할 기회는 노동의 구조와 자본주의의 폭넓은 구조에 좌우된다. 이 절에서는 노동자가 직업을 바꾸거나 기업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는 경제적 유연성과 현재 성별과 일/가족 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터의 유연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401)

유연성, 전직 장애, 기업가 정신

일자리는 정체성의 큰 부분이자 평등이나 불평등의 동력기관이며, 자유나 의존의 현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일부는 노동과 사회보험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가령 실업수당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업수당을 인도적·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본다. 하지만 실업수당은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 때문에도 중요하다. 피고용인들이 실업의 즉각적인 결과를 두려워해야 하는 정도를 줄여줌으로써, 전반적인 기회구조를 좀 더 유연하고 다원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402)

어떤 이들은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연금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묶인다. 이와 같은 전직 장애는 사람들이 경제구조의 현재 위치를 벗어나 더 나은 삶의 구상을 추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다른 통로들을 차단한다.

사회보험의 형태를 띤 여러 변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정책 변화는 개인들이 이 병목을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 가령 보편적 보험제도가 있다면, 개인들이 이런 충격에 노출될지 모르는 경로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404)

더 유연한 기회구조를 건설하려면, 사람들을 특정한 일자리와 전문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벽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장벽에는 국가가 강제하는 직업 면허 제도도 포함된다. 물론 어떤 형태의 면허에는 안전이나 보건상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면허제도 때문에 이발사나 미용사가 되는 게 어려울 때면 언제나 기회구조의 다원적 성격이 약해진다.(405)

자본과 신용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있다. 자본, 신용, 경제적 기회에 대해 접근성을 갖지 못한 이들의 경로는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소금융(Microcredit/Microfinance)은 경제 활동을 하는 빈곤층에게 자본 접근성을 직접 개방함으로써 기존 기회구조를 해체하려고 노력한다.(407)

일터의 유연성과 성별 병목현상

여성들이 양육을 완전하고 행복한 노동생활과 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경로들의 조합을 추구할 수 없다면, 성별은 여전히 아주 제한적인 병목이다. 기회다원주의는 우리에게 노동의 세계와 양육을 둘러싼 일부 규범을 재구조화할 것을 요구한다.(409)

많은 일자리는 이른바 “이상적 노동자” 규범을 중심으로 축조된다. 이 규범에 따르면 노동자는 전통적인 가정의 전형적인 생계부양자와 같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규범은 전통적인 남성일자리 전체에 걸쳐 만연해있다.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여성에게는 아주 후한 휴가를 주고, 남성에게는 훨씬 적게 준다. 이런 정책은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에서 극명하게 다른 통로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은 이상적인 노동자 일자리로 떠밀고 여성은 주 변적 노동이나 파트타임 노동으로 떠밀어 가정에서 더 큰 돌봄 역할을 부여한다. 이런 정책은 기회구조에서 아주 만연한 병목을 강화한다.(411)

이 문제들은 이상적 노동자 규범 자체를 무너뜨리고 더 다원적인 규범으로 대체해야 해결 가능하다. 정책의 수준에서 첫 번째 단계는 고용주들이 이상적 노동자에게 훨씬 오랫동안 일을 시킬 유인을 줄이고, 그 대신 더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해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게 하는 것이다.

공공정책으로는 직원당 고정 비용을 줄이고,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일하는 직원의 한계비용을 최고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모듈화된 노동³⁾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60퍼센트의 급여를 받고 60퍼센트 만큼의 일을 하는 것이다. 모듈화된 노동은 정규직 트랙과 대조되면서도 파트타임 트랙같은 분리된 궤도를 만들기보다는 직원 보상의 모든 형태를 직원들이 실제하는 유동적인 노동량에 연동시키고자 한다.

모듈화된 노동은 부모를 따로 특별히 대우하고 부모의 이해와 다른 이들의 이해를 대립시키는 대신, 이상적-노동자-규범 병목을 개선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 책임의 모양에 관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418)

3장 병목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령들 각각은 기회구조 안에 있는 중요한 병목을 개선하며, 바로 이 때문에 입법자들이 제정한 것이다.(423)

신용조회 활용 제한 법률, 네모칸 금지 법률(범죄전과를 기록하는 네모칸을 넣은 양식을 금지하는 법률) 등은 고용주들에게 면접 요청을 받을 기회에 무척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병목현상 방지 원리는 이런 법률들이 추구하는 많은 실용적인 타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모 칸 금지 법률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초기 지원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균형을 유지한다.(426)

모든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병목의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법적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 달라 보이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금지법의 영역들에 일정한 지속성과 일관성이 생긴다.

3) 일자리 크기가 고정된 의무와 혜택의 묶음으로 정의하는 대신 다양한 크기의 모듈로 분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혜택과 의무도 그에 비례해서 바뀐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법학자와 정치이론가들은 오랫동안 법이 사회의 어떤 집단을 차별에서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씨름했다.(427)

오늘날 고용을 다루는 미국의 주요한 차별금지법령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등을 포함한다. 차별금지의 범주 목록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집단을 보호하거나 보호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여러 다른 형태를 붙잡고 거듭 씨름을 하고 있다.(428)

대법원은 아주 유명한 주석에서 “따로 떨어져 고립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철저한 헌법적 보호의 근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런 소수자들은 정상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29)

차별금지법이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른 대안들과 구별된다. 첫째, 이 답은 역사나 과거 차별에 관한 어떤 주장에도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둘째, 차별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에 관한 어떤 주장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셋째, 어떤 형태의 차별이 모욕적이고 불쾌한 가라는 질문 같은 사회적 의미에 관한 어떤 주장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넷째, 또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관한 주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어떤 ‘집단’도 존재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오로지 -현재 시제로- 개인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와 그것을 제약하는 힘들에만 초점을 맞춘다.(432)

사례 하나 : 외모 차별

병목현상 방지 원리에 따르면, 법률은 현재 무시하는 일부 차별 형태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의 유력한 사례는 외모 차별이다. 여성은 특히 마르고 젊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편견의 가장 강력한 형태에 맞닥뜨린다.(436) 외모 차별은 심각한 병목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이 병목을 공격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기회다원주의 관점에서 보면, 외모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정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개인의 외모나 외모의 특징이 특히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교적 적은 일군의 직종(가령 모델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외 조항을 두기만 하면 된다.(436)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타인의 외모에 무감각하거나 중립적인 세상을 추구하거나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열망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병목의 심각성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이런 실천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이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선을 추구하는 기획이라고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437)

결론

기회를 완전히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란 없다. 그래서 출발점에서 평등을 맞

추는 대신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기회다원주의는 공적과 능력의 문제에서 벗어나 기회에 대한 제약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저자 소개

조지프 피시킨(Joseph fishkin)

텍사스대학교 로스쿨 교수 (고용차별, 헌법, 선거법, 평등기회법)

(관심분야 :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Election Law; Education Law; Fair Housing Law; Poverty & Inequality; Constitutional Law; Property; Torts)

학력

예일대학교 학사 (윤리, 정치, 경제학), 2000(*summa cum laude*)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석사, 2002

예일대학교 로스쿨 전문박사(J.D), 2007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2009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The Anti-Oligarchy Constit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논문

Bottlenecks and Flourishing: A Response 12 Review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37 (2016)

Wealth, Commonwealth, & the Constitution of Opportunity (with Willy Forbath), NOMOS LVIII: Wealth 45 (2017) 외 다수

When is Discrimination Bad? (in progress)

Race-Based State Action and the Law of Equal Opportunity (in progress)